

GM 드래프트의 날

By Choi Hoon < 18 >



아니 대구 시내에서 한 시간 넘게 들어 온거 같은데..

정동면 하대리 라고 해봐. 누가 알아? 다 그냥 대구라고 하는거지.

아 그리고 우리 교직원들이 별로 없어서 자네 옆에 붙어서 일일이 견학시켜줄 수 없으니깐, 알아서 보고 다니고, 궁금한거 있으면 경비실이나 직원실로 와서 물어봐.



여..여기는 대구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어딘데?

그리고, 혹시 숙소 소개받을 수 있을까요?

숙소?!!! 도대체 견학을 얼마나 하려고 숙소를 알아보나?

호텔같은거 찾는거라면 대구쪽으로 가야하고, 민박이라하면 과수원 김씨네가 깨끗하고 좋아.

민박 좋네요.

아니 그냥 좀 꼼꼼히 보고 싶어서...



여기가 군대 간 우리 아들방. 여기서 자면 되는데 괜찮지?

홀름 하네요~

입차 뭐해?!! 차 가져왔어!!

서울에 있는 우리 딸이 둘째를 낳았지 뭐야. 그래서 거기 가봐야 해.

네. 곧 나가요!

아! 어.. 언제 돌아오시나요?



여기가 부역. 쌀은 여기 있으니깐 마음대로 해먹어도 돼.

저..저기 밥을 제가 해먹어야 하나요? 그게 나도 해주고 싶은데...

걱정마. 내가 손주 얼굴만 보고 금방 올게.

어젯밤에 온 여자 손님이 한 분 있는데 아무리 자유로운 요즘 세상이라지만 오래동안 남자여자 둘이만 한 집에 놔둬순 없잖아?

네.. 넷?!!! 뭐라고? 누가 있다고요?

※ 'GM 드래프트의 날'은 'sportsdonga.com' 에서 첫 회부터 보실 수 있습니다.

Culture diary

지리산에서 백두산까지... 병풍처럼 펼쳐진 백두대간

● '문봉선의 강산여화' | 문봉선 저 | 수류산방

그림 한 점의 길이가 세로 1미터, 가로 150미터나 되는 대작을 만나기란 쉽지 않다. 시간과 주제, 근기 등 공력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한국화가 문봉선은 최근 그 힘든 작업에 낙관을 찍고 '옥동자'를 세상에 내보냈다. 백두대간 1625km의 산수를 그린 '강산여화'가 그것이다. 그는 '강산여화'를 완성하기 위해 2010년부터 백두대간을 걷고, 오르고 또 걷고 올랐다. 그리고 그 풍광을 산수화로 그려 화폭에 오롯이 담았다. 3년의 성상을 그곳에 묻고서야 가능했다. 문 작가는 최근 서울동대문디자인플라자 디자인톨레지에서 '백두대간 와유'라는 제목으로 특별전을 열어 감동을 주고 있다.



'문봉선의 강산여화'는 대작 '백두대간 와유' 특별전의 작품을 10분의 1로 줄여 만든 도록 형식의 책이다. 각각 8쪽 병풍의 형식을 띠며 15권과 머리말, 맺음말 등 총 17권을 1책으로 묶었다. 각 한 권씩 뽑아 펼치면 지리산에서 백두산까지 이어진 백두대간의 산수화가 병풍처럼 펼쳐진다. 앞면에는 백두대간 영봉들의 전경과 작가의 해제가, 뒷면엔 전경 중 부분을 확대한 그림이 이어진다. 디자인이 독특하다. '북 디자인의 명가'인 수류산방의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부분이다. 8만5000원이라는 책값이 비싸지 않게 느껴진다. 이 책 한 권이면 집안에 그림을 걸어놓은 채로 안방에 푹눕듯 누워 눈과 마음으로 백두대간을 감상할 수 있다. 사족, 문 작가는 누구에게나 '한 폭의 그림 같은 인생'이기를 기원하며 소통파의 '적벽회고'의 한 구절을 따 '강산여화(江山如畫)'라는 작품명을 붙였다고 한다.

출산에 육아에... 나를 잃고 사는 미시, '치유의 일기장'

● '나는 글 쓰는 여자다' | 윤숙 저 | 팬덤북스

'30일, 나를 들여다보는 글쓰기 수업'이라는 부제가 달려있다. 결혼한 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글쓰기 수업 내용을 엮은 책이다. 결혼과 출산, 육아에 치여 자신을 잃어버리고 사는 여자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일기장이기도 하다. 하루치의 일기를 쓰듯 단편으로 엮은 이 책은 여자라면, 아내라면, 엄마라면, 며느리라면 공감하지 않을 수 없는 주제로 가득하다.



작가는 말한다. 이 책은 글쓰기의 소질을 발견하는 책이 아니고, 글재주와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형식에 얽매일 필요도 없다고. 그저 이 책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자신을 위해 열심히 쓰겠다는 의지와 진인할 정도로 솔직해지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말할 뿐이다.

'나는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을까', '시댁과의 대화, 병어리 몇 년차예요?', '딱 나같은 아들 딸'과 같은 주제별 질문들은 생각의 꼬리를 물고 이어져 펜을 들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읽는 재미와 쓰는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묘한 책이다.

저자 윤숙은 대학에서 문예창작을 전공했고 인터넷 신문의 사회부 및 여성부 기자생활을 했다. 공연 연출을 하고 글쓰기를 가르치다 전지 디자인회사에서 PD를 하기도 했다. 현재는 결혼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며 글쓰기를 가르치는 한편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책을 읽어주며 발견한 할머니·할아버지들의 소박한 삶

● '할매 할배 참 곱소' | 김인자 글·신현옥 사진 | 씨드북

책 읽어주는 동화작가 김인자가 30여 년간 책을 읽어주며 발견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평범하고 소박한 삶을 담은 책이다. 이 책에 실린 여든 세 편의 작품 속 인물들은 대단하고 잘난 노인들이 아니다. 저자가 그림책을 읽어주며 만난 평범한 할머니, 할아버지다. 저자는 유쾌한 감성과 따뜻한 시선으로 할머니, 할아버지의 특별한 순간과 아름다움을 포착해 투박하지만 정겹고 친숙하게 표현했다. 삶의 현장 그대로의 표정과 인생의 희로애락을 담은 사진과 따뜻한 밝은 이야기들이 독자에게 가슴 뭉클한 사랑과 위로를 안겨준다.



이해인 수녀는 추천사에서 "이 책은 길 위에서 발견한 우리 어버이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이 담겨 있는 매우 특별한 책이다. 어떤 대목에선 한참을 머물렀고, 또 어떤 대목에서는 정겹고 정한 감동을 느꼈다"라고 썼다.

뉴스디자인 | 김창조 기자 minigram@donga.com

Biz gallery

한화리조트, 제주항공권 타기 이벤트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3월 오픈한 인스타그램에서 제주도 왕복항공권이 걸린 'GO OUT' 이벤트를 진행한다. 15일까지 한화리조트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한 후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한화리조트 방문 시 찍었던 여행 사진을 #한화리조트GOOUT #한화리조트 해시태그와 함께 남기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추첨을 통해 제주 왕복항공권, 아쿠아플라넷 캐릭터 인형등을 증정한다.



강원랜드, 5월 가정의 달 패키지

강원랜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15일 스승의 날, 21일 부부의 날 패키지를 출시했다. 스승의

날 패키지는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판매되는 패키지로서 강원랜드호텔과 하이원호텔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15일부터 31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부부의 날 패키지는 강원랜드호텔(주니어 스위트룸) 숙박과 월드퓨전 조식, 페이셜 테라피가 포함된 상품으로 20일부터 31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롯데월드몰, '로맨틱 비어가든' 페스티벌

롯데월드몰은 5월 가족의 달을 맞아 아레나 광장과 월드파크에서 '로맨틱 비어가든 페스티벌' (사진)을 2회에 걸쳐 개최한다. '로맨틱 비어가든 페스티벌'은 롯데몰산이 송파구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진행하는 페스티벌로, 롯데월드



타워와 석촌호수 잔디밭(아레나 광장, 월드파크) 일대에서 맥주를 무료로 증정 및 판매하는 행사다. 1차 행사는 5일부터 8일까지 진행되고, 2차 행사는 12일부터 15일까지 열린다. 롯데월드몰에서 당일 2만원 이상 구매한 영수증을 제시한 고객과 여권을 소지한 외국인 고객 6000명 한정 으로 클라우드 생맥주와 감자칩을 무료로 증정한다.

익스피디아, 직장인 선호 호텔 프로모션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 익스피디아는 홍콩, 베트남 다낭, 영국 런던, 스페인 바르셀로나 등 전 세계 인기 여행지 호텔을 할인하는 프로모션(사진)을 진행한다. 31일까지 예약할 수 있으며 여행 기간은 7월 31



까지다. 익스피디아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호 여행지역의 대표 호텔들로 동북아 189개, 동남아 193개, 유럽 64개, 북미 및 남태평양 호텔 138개, 오세아니아 및 남미 호텔 27개 등 총 611개 호텔이 참여했다.

대명리조트-페이코 제휴 워터파크 할인

대명리조트는 5월 동안 온라인, 모바일 간편결제 페이코(PAYCO)와 워터파크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페이코를 이용해 대명리조트 워터파크 결제하는 고객에게 5000원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대명리조트 워터파크 입장권 구매시 결제수단에서 페이코를 선택하고 이벤트 쿠폰 다운로드 및 할인 적용을 하면 된다. 결제 가능한 대명리조트 워



터파크는 비발디파크 오션월드, 거제 마리나 리조트 오션베이, 아쿠아월드(부산, 경주, 단양, 델피노, 솔비치) 등 7곳이다.

대전마케팅공사, '대전 골목여행' 진행

대전마케팅공사는 대전광역시, 한국관광공사 대전지사과 함께 봄 여행주간 대표 여행프로그램 '대전 골목여행(사진)'을 진행한다. 대전 원도심을 무대로 지역 전문가의 해설을 들으며 대전의 멋과 맛을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영화 '변호인' 촬영지인 옛 충남도청 등 원도심 일대 근대화유적 투어, 골목길 작은 공방 체험, 수제 초콜릿 만들기, 원도심 맛투어 등으로 구성했다.

